

성삼 후 20주일(연중 29주일) 감사성찬례

집전: 최바우로 신부      설교: 최바우로 신부      보혈조력: 정요셉  
지휘: 이유니스      반주: 정모니카/지헬레나      선창: 김니콜라

개회예식

†입당성가 ..... 263장 ..... 다 함 께  
†정심(淨心)기도 ..... 8쪽 ..... 집 전 자  
†죄의고백 ..... 9쪽 ..... 다 함 께  
†기원송가 ..... 거룩하신 하느님 ..... 다 함 께

말씀의 전례

†본 기 도 ..... 집 전 자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인내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  
는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게 하소서.

1독서 ..... 이사 45:1-7 ..... 말 은 이  
성 시 ..... 시편 96편 ..... 다 함 께



-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여라.  
○ 온 세상아, 주님을 노래하여라.
  - 주님을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우리를 구원하셨다.  
○ 그 기쁜 소식 날마다 전하여-라.
  - 놀라운 일을 이루시어 이름을 떨치셨으니  
○ 못 민족, 만백성에게 이를 알리어-라.
  - 높으신 주님을 어찌 다 찬양하랴.  
○ 신이 많다지만 주님만큼 두려운 신이  
어디 있으랴.
  - 못 족속이 섬기는 신은 모두 허수아비지만  
○ 주께서는 하늘을 만드신 분이시-다.
  - 그 앞에 찬란한 영광이 감돌고  
○ 그 계시는 곳에 힘과 아름다움이 있-다.
- 영광이 성부 와 ○ 성 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 아- | 멘

2독서 ..... 1데살 1:1-10 ..... 말 은 이  
†복음환호송 ..... 말 은 이  
†복음서 ..... 마태 22:15-22 ..... 말 은 이

설교 ..... 바우로 신부  
니케아신경 ..... 16쪽 .....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말 은 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 19쪽 ..... 다 함 께  
†봉헌성가 ..... 510장 ..... 다 함 께  
성찬기도 ..... 20쪽 ..... 1 양 식  
거룩하시다 ..... 22쪽(C곡) ..... 다 함 께  
주의기도 ..... 25쪽 ..... 다 함 께  
성체나눔 ..... 26쪽 ..... 다 함 께  
하느님의 어린양 ... 27쪽(C곡) ..... 다 함 께  
성체성가 ..... 411장 ..... 다 함 께  
†영성체후기도 ..... 29쪽 ..... 다 함 께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  
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  
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  
이다. 아멘.

교회소식 ..... 신 자 회 장

파송예식

†축복기도 ..... 29쪽 ..... 집 전 자  
†파송성가 ..... 565장 ..... 다 함 께  
(†는 일어섬)

	이번 주일(10월 22일)	다음 주일(10월 29일)
1독서	정연창	이숙영
2독서	박순호	홍종분
대 도	최용욱	권순호
다음주일 전례독서	레위 19:1-2, 15-18   시편 1 1데살 2:1-8   마태 22:34-46	
성 가	240   504   365   363	
복 사	정선우	보혈조력    정스테반
다음주간 교회청소	<2조> 김준우    조장은 류한신	

(1997-2023 / 교회설립 26주년)



# 성공회 산본교회

St. Clare's Anglican Church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1, 청진빌딩 7층 ☎ 031-397-0443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2023년 10월 22일 성삼 후 20주일(연중 29주일) · 가해 · 녹색

제27-43호

##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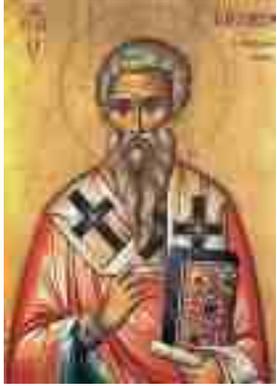


“카이사르(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답해도 올라가기를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옳다고 하면 친로마 민족배반  
자요, 옳지 않다 하면 반로마 불온분자로 몰리게  
됩니다. 하느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로마 황제  
의 식민통치를 받던 상황 탓입니다.  
황제가 신이라는 문구와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데  
나리온 동전은 객관적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당대  
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셨습니다. 이 동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로마제국의 식민지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전제로 예수님은 질문의 주  
도권을 바꿔 잡습니다. “이 초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나?”는 예수님의 반문에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  
리려던 이들은 “카이사르의 것”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  
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실은 답이 아니라 새로운 물음입  
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느님께 마땅  
히 속한 모든 것 가운데 어떤 몫을 카이사르의 것  
으로 인정하느냐는 물음입니다. 올라가기를 씌우는 일

에 실패한 이들은 가장 본질적 물음을 떠안고 “경  
탄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성서는 전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통치자나 정치가에게 맡기고, 신  
앙인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친교하면 족하다는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을 평범한 교훈으로 받아들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의 올바른 관계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라”하신 말씀은 새로운 물음입니다. 우리의 세상살  
이가 세상의 논리와 권세를 따르며 적절히 타협하  
는 일이 될지, 하느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따르  
며 기쁨으로 도전하는 일이 될지를 우리의 진심에  
물으시는 깊은 물음입니다.  
세상에는 엄연히 카이사르가 지배하는 땅의 질서,  
즉 세상의 방식과 질서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느님  
께서 창조하시어 다스리시는 하느님 나라의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의 땅도 하느님 창조의 일부일 뿐  
입니다. 신앙인은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느님 나라의 질서를 누리고 확장합니  
다. 신앙인은 그 질서가 우리 삶에 참된 평화와 행  
복을 가져오는 힘임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교구장 이경호(베드로) 주교 / 관할사제 최용준(바우로) 신부 / 협동사제 최수재(토마스) 신부  
신자회장 최용욱(어거스틴) / 사제회장 김운권(베네딕트) / 원로회장 한명숙(율리아나)

## 예루살렘의 성 야고보 축일 (10월 23일)



예루살렘의 성 야고보는 가장 많은 별명을 지닌 성인인지도 모릅니다. 그 이름 앞뒤에는 ‘의인’ ‘주님’ ‘예수님의 형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듯이 ‘예루살렘의 주교’라는 이름이 붙곤 했습니다. 그마다 이 성인이 보여준 삶의 면모를 잘 드러냅니다.

예루살렘의 성 야고보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라는 복음서의 기록이 분명한데, 그것이 어떤 형제 관계인지를 두고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교회는 이분이 요셉의 첫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라는 전승을 따르고, 천주교도 비슷한 주장을 하며 마리아와는 혈연적 관계가 없다고 애써 주장합니다. 개신교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요셉과 사이에서 다른 자녀를 두었다며, 성모 마리아가 동정을 지켰다는 생각을 애써 지우려고 합니다. 성모 마리아 교리와 신심에 관한 생각 차이에서 비롯했으리라 짐작하는 이런 신경전은 성인이 보여주는 삶을 덮어버립니다.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예수님과 정확한 혈연관계가 어떻든, 성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 이후,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을 잘 이끌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선교 전략은 유대인의 관습을 잘 지키면서 신뢰를 얻어 그리스도교로 안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로 성인은 이방인들 선교에 할레와 같은 유대인 관습은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보고 더욱 너그럽고 자유로운 선교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 전략 차이 때문에 둘 사이에 갈등이 일기도 했고, 베드로는 그 사이에서 난처한 처지에 놓이기도 했지만, 선교지와 선교 대상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면서 오히려 교회는 다채롭게 발전했습니다. 더 큰 복음화의 사명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후에 세 지도자 모두 순교로써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그러니 성인에게 덧붙여야 할 별명 하나는 ‘순교자 야고보’입니다. 그는 서기 62년 혹은 69년 10월 23일에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승은 기록합니다. 그는 주교로서 순교한 초대 교회 전통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초대 교회의 두 기둥이었던 예루살렘의 야고보와 로마의 베드로가 순교로 복음을 증언하고, 이방인들의 사도였던 바울로 역시 순교자였다는 사실은 교회가 신학과 견해 차이를 넘어서 어디서 하나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그들이 저마다 예수님과 매우 깊은 사적 관계(가족의 형제, 수제자, 신비한 만남)에서 얻은 특권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온 생명과 기력을 복음의 증언과 교회를 위해 바쳤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 위에 참되고 바른 교회가 섭니다.

### 이번 주 외울 말씀 1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카전서 5장 16~18절)

### 교회소식

#### ■ 전례와 사목

##### ◆ 모든 교우의 날(교회축성기념일) · 추수감사주일

11월 19일(주일) 오전 11시

교회설립 26주년, 교회축성 11주년을 기념합니다. 뜻 깊은 날 주교님이 순방하여 건진성사를 베푸십니다. 교회의 믿음은 교우들의 마주치는 눈에서 기쁨이 되고, 잇닿은 가슴에서 사랑이 되며, 맞잡은 손에서 친교와 봉사의 힘이 됩니다. 가족과 친지와 벗들 모두를 초대하여 기쁘게 모입니다.

#### ■ 알림

##### ◆ 성령 세미나 안내 (신청서 비치)

11월 4일(토)부터 안양교회에서 7주간 진행됩니다.

시간: 오후 3시~5시 / 회비: 20,000원(교재포함)  
기도 가운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 세례성사 교육 안내 (세례성사 - 12월 24일)

10월 26일(목) 오후 6시 30분 / 예비자 - 김훈나

##### ◆ 견진성사 교육 안내 (견진성사 - 11월 19일)

10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 예비자 - 채희영  
10월 27일(금) 오후 6시 30분 / 고미순 이도연

##### ◆ 수요 성서공부 나들이 (장소: 한국 민속촌)

10월 25일(수) 교회 출발 9시 30분(건물주차장)

##### ◆ 신자 사역자 모임 (10월 24일(화) 6시 30분, 교회)

##### ◆ 풋살 경기 안내

오늘(22일) 오후 2시 / 대야미 풋살구장  
학생회, 청년회, 아버지회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성서 퀴즈대회 (범위 : 마태오복음 1~12장까지)

10월 29일(주) 11시 성찬례 후에 열립니다.

##### ◆ 산본교회 안양교회 안산교회 연합 예배 성료

지난주일(15일) 남부교무구 세 교회의 연합모임은 은혜로운 예배와 즐거운 친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봉헌금은 늘푸른 복지관을 후원하였습니다.

##### ◆ 제4회 서울교구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0월 28일(토) 오후 4시 / 서울주교좌성당

##### ◆ 서부권 세교회 임원단모임 (10월 29일 2시 30분, 안양)

### 지난 주일 통계

■ 십일조 · 월정헌금 70,000원  
김준우/조장은

■ 연합예배(늘푸른 노인복지관) 934,000원  
고미순 권순호 김소라 김준우 류한신 무명 박선희 박종례 백남진 백옥경 신동홍 유군상 유아운 유아현 유정훈 이서현 이원주 이윤식 이은가 임광호 임혜지 장성환 정국진 정시원 정연창 지병애 채희영 최순덕 최용욱 허훈제 홍종분

■ 감사헌금 100,000원  
장성환/임혜지

■ 교회 차량헌금 100,000원  
조준행/이은경

### 〈온라인 미사 봉헌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33-428656 대한성공회 산본교회

### ◆ 주간 전례독서 (10월 23일~28일 / 연중 29주간)

	독서	복음
23일(월)	1고린 15:1-11	마태 13:54-58
24일(화)	로마 5:12, 15, 17-21	루가 12:35-38
25일(수)	로마 6:12-18	루가 12:39-48
26일(목)	로마 6:19-23	루가 12:49-53
27일(금)	로마 7:18-25	루가 12:54-59
28일(토)	에페 2:19-22	요한 15:17-27

### ※ 기도해 주세요 ※

#### ◆ 가족과 이웃을 향한 전도

70명이 주일 성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 ◆ 환우 교우를 위하여

강영옥 권영분 기필순 김길자 김승숙 김옥현 박종례 박순호 안병순 임광호 이성중 유군상 유정환 조준행 신부 정시원 채희발 한명숙

#### ◆ 해외 체류

김보미 조민규 조이준 방유미 이형석 디아나 이주안

#### ◆ 새교우(예비신자) 전아영 이요한 김훈나